

연극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들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전시 <없는 극장>

글_백두산(연극평론가)

점잖은 40년의 잔치, <없는 극장>

'개관 40주년 기념'이라 하면 환갑잔치가 그러하듯 사진을 곁들이고 멋진 수사를 동원하여 한 인간의 삶을 찬양하는 떠들썩한 의식을 떠올리겠지만,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전시 <없는 극장> (미디어연출 권병준, 텍스트/공간설치 함성호·최장원, 극작 배혜를·이홍도·장영, 아르코예술극장, 2021.4.1~30)은 이러한 예상을 정확히 빗나가 있어 펍 점잖다. 40주년에 무슨 환갑잔치 운운인가 하겠지만, 한국의 극장사에서 현역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나이 많은 극장이란 것이 원체 손에 꼽을 정도여서 명동예술극장(1934), 드라마센터(1962), 삼일로창고극장(1971), 남산 국립극장(1973), 세실극장(1976), 세종문화회관(1978)과 같은 어르신들의 다음으로 아르코예술극장의 전신인 문예회관(1981)이 잔을 받을 차례가 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수사가 과히 무리하지 않다. 낭비적인 의식을 털어낸 자리에서 <없는 극장>은 극장의 안과 밖을 뒤집고, 연극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실제, 극장이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관객들에게 툭툭 던진다. 코로나19 사태와 여타 공연스케줄을 고려한 관객 및 관람시간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을 전시라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질문은 의미가 깊고 재기(才氣)있다. 관객들은 제공된 헤드셋을 쓰고 아르코예술극장의 1·2층 로비와 지하 연습실의 전시물을 서성이다가 문득 떠돌아다니는 몇 가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노신사가 품은 깊고 겸손한 수원(水源)을 여행한다.

뒤집힌 극장, 인간의 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층 로비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여행의 첫머리에는 <극장 이전의 극장, 반전된 캐노피>(함성호 작)와 <극장 이

후의 극장, 부유하는 기둥들>(최장원 작)을 만난다. 아르코예술극장의 정면에 있는 캐노피를 뒤집어, 위에서 아래로·바깥에서 안으로 역전된 형태의 구조물 좌우로 고대 그리스 극장의 폐허에서 봄직한 기둥들이 이리저리 늘어서 있다. 바닥의 캐노피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굽어보기를 권하고, 기둥들은 관람객이 서성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다.

1층에 구성되어 있는 이 두 편의 전시물은 '뒤집힌' '극장'이라는 두 가지의 문법에 충실하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 극장은 공연이라는 마법의 원 속으로 인간(배우와 관객)을 초대하기 위해 지은 공간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인간은 극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기억과 사유 속에 극장을 짓는다. 그리하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극장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움직이며 시간을 견딘다.¹⁾ 관객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던 캐노피를 굽어보며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극장의 기둥 사이를 오가며 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팜플릿을 집어넣고(친절한 지도가 있는 여행이란 관광이지 여행이 아니다) 1층 로비를 거닐다 보면, 관객들은 입장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극장 입구에서 곤욕을 치르는 건축가 김수근의 목소리와 희곡 쓰기에 절망하는 극작가의 이야기(이홍도 작), 극장 앞 카페에서 만난 배우와 팬의 대화(장영 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서 인터미션이 끝나고 극장 로비에서 서성이며 들어가지 못하는 관객의 목소리(배혜를 작)를 듣게 된다.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속삭이는 극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유와 기억 속에서 어떠한 집을 짓는가.

배우: 만약 당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되었다고 믿고 이렇게 외롭지만

외로워서 새벽마다 혜화동 로터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지만,

1) "부자들은 / 시바 신에게 사원들을 지어줄 것이다 / 나, / 가난한 자는 / 무엇을 만들까? / 내 다리는 지주들이고 / 내 가슴은 신전의 지하 예배소, / 내 머리는 금으로 만든 둥근 지붕이다. / 들어라, 서로 만나는 강줄기들의 지배자여 / 안정된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 그러나 움직이는 것들은 언제나 견디리라." (12세기 인도의 성인 바지바나(Basavanna)의 시, 유제니오 바르바, 안치운 역, 『연극 인류학: 종이로 만든 배, 창작과 비평사, 2001. 재인용』)